

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 관계

Teacher's socio-demographic factors, resilience and teacher-infant interaction

이병선 (대구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)

김진경 (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)

연구목적: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(연령, 학력, 경력)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,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(연령, 학력, 경력)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.

연구방법: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소재의 유치원·어린이집 만 3세~5세 담임교사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. 연구도구는 첫째, 회복탄력성 Reivich와 Shatte(2003)가 개발한 지수검사(Resilience Quotient Test; ROT) 문항을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한 김주환(2011)의 KRO-53(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)를 사용 하였으며, 둘째, 교사-유아 상호작용은 한국유아 프로그램 평가척도(APECP, NCAC,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, 한국교육개발원 평가기준)에서 교사-유아 상호작용 유형의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·보완한 이정숙(2003)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18.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, 사후검증,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.

연구결과: 첫째, 교사의 사회인구학적변인(연령, 학력, 경력)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. 둘째,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변인(연령, 학력)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전체와 하부요인인 정서적, 언어적, 행동적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: 본 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(연령, 학력)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교사는 발달에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유아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만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결론적으로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들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하고,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여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.

Key word: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, 교사의 회복탄력성, 교사-유아 간 상호작용